



동아시아에서의 탈냉전과 전장 관광의 지속가능성: 진먼을 중심으로*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오준방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 글은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된 전장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양안 사이에 있는 진먼(金門)에서의 전장 관광의 형성 과정과 관광의 실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먼은 양안 분단의 출발점이 된 꾸닝토어 전투(古寧頭戰役)의 현장이자, 양안 대치기의 포격전의 현장이었고, 타이완 측 최전방의 경계였다. 탈냉전과 함께 시작된 진먼 관광은 전장 관광과 국경 관광을 결합했다.

진먼 관광은 주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두 집단, 즉 타이완에서 들어오는 관광객과 중국 대륙에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을 표적으로 하는데, 이 글에서는 관광의 구체적 동학을 관광객과 원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면서, 타이완 관광객과 대륙 관광객의 시선과 행태의 차이를 검토한다. 더 나아가 진먼의 전장 관광이 어떻게 대안인 사면에서 이에 상응하는 전장 관광을 발전시켰는가를 탐구한다. 진먼의 전장 관광은 냉전경관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지만, 점차 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한 복합 관광으로 발전해가며, 나아가 지속가능성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주제어 냉전경관, 전장 관광, 국경 관광, 응시, 지속가능성

I. 전장 관광 개념과 기존 연구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진행되는 세계적인 탈냉전은 동아시아 관광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놓고 있다. 자연 관광이나 문화유산 관광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타이완(臺灣)의 경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과거의 국가폭력이 낳은 상처의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재난이나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을 돌아보는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이 형성되었다. 더불어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지역을 돌아보는 전장 관광 등이 새롭게

* 이 글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4955).

형성되고 있다.

전장 관광은 원래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유럽의 제1차 세계대전 또는 제2차 세계대전의 흔적을 찾아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다(Lloyd, 1998; Seaton, 1999; 2000; Cooper, 2006; Chambers, 2012), 동아시아에서도 전쟁의 흔적을 담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는 전장 관광이 일찍부터 존재해왔지만, 오랫동안의 냉전-분단은 본격적인 전장 관광의 형성을 방해해 왔다.

1970년대 오키나와(沖繩)를 시작으로 하여 1990년대 한국이나 타이완에서 진행된 탈냉전은 기존의 안보 관광을 평화적 전장 관광으로 변화시키거나 최소한 양자를 미묘하게 혼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휴전선이나 판문점 관광을 넘어서서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가 남북 간 화해 협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타이완에서는 양안 간 대치의 최전선이었던 진먼(金門)이 새로운 전장 관광지로 떠오르게 되었다. 냉전 하에서의 전장 관광이 대체로 민족주의적이고 안보지향적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면, 탈냉전 하에서의 전장 관광은 상대적으로 성찰적이며 평화지향적 프로젝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Herborn and Hutchinson, 2014). 과거의 안보 관광이 그렇듯이 전장 관광 또한 기획 주체와 여행 주체가 항상 동일한 패러다임을 공유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종종 의도와 결과가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글은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된 전장 관광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양안, 정확하게 말하면 소양안(小兩岸 또는 金廈地區)에 속하는 진먼에 주목하여, 전장 관광의 형성과정과 관광의 실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진먼은 양안 분단의 출발점이 된 꾸닝토어 전투(古寧頭戰役)의 현장이자, 양안 대치 시기 포격전의 현장이었고, 타이완 측 최전방의 경계였다. 탈냉전과 함께 시작된 진먼 관광은 전장 관광이면서 경계지점을 돌아보는 국경 관광을 겸했다. 진먼 관광은 주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두 집단, 즉 타이완에서 들어오는 관광객과 중국 대륙 특히 진먼의 대안(對岸)에 있는 샤먼(廈門) 및 푸젠 성(福建省) 지역에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을 표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관광의 구체적 동학을 관광객과 원주민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보면서(Maoz, 2006), 관광 주체인 타이완 관광객과 대륙 관광객의 시선과 행태의 차이를 검토하고(Perkins and Thorns, 2001), 더 나아가 진먼의 전장 관광이 어떻게 대안인 샤먼에서 이에 상응하는 전장 관광



출처: Google map.

그림 1 진먼과 소양안

을 발전시켰는가를 탐구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현장조사 외에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진먼의 전장 관광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총 7명이었고, 여기에는 여행사 사장 한 명, 가이드 두 명, 국가공원 안내원 세 명, 그리고 택시 기사 한 명이 포함되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주로 타이완과 중국의 관광객들 간의 차이를 파악했다.

지금까지 진먼의 탈냉전과 전장 관광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마이클 스조니(Michael Szonyi)의 『냉전의 섬』이 2008년 출간된 이래 진먼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포격전의 유산인 탄피로 만드는 칼 제조업은 장인 우 쯙둥(吳增棟) 씨와 함께 유명해졌다(Zhang, 2010).

진먼의 전장 관광 발전에 대한 연구에서 호 진송(侯錦雄, 1999)은, 진먼의 관광 산업이 개방 초기에 급속히 발전하다가 1998년 정체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타이완에서 온 관광객의 ‘개방 6년의 한계효용 감소’, 즉 진먼을 타이완 관광객에게 개방한 지 6년이 지나자 신비감이나 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때까지 대륙에서 오는 관광객은 별로 없었다. 호 진송의 지적은 ‘진먼의 전장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궈 메팡(郭美芳, 2012)은

진먼 전장 관광의 한 가지 문제점으로 자원의 상실을 지적했다. 즉, 1992년 계엄령을 해제한 이후 진먼인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이 가진 ‘전장’ 이미지를 떨쳐내고 싶어했다. 그 때문에 1990년대부터 많은 군사적 방어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해서 중요한 역사적 흔적뿐만 아니라, 주민의 기억이 담긴 장소들의 정신적 의미도 지웠다는 것이다. 짜오 나이자(趙乃嘉, 2012)는 진먼의 전장 경관은 국제적인 자원이며, 전장 경관을 먼저 보존하고 이것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복구한 후 관광진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쓰 페린(施沛琳, 2014)은 진먼의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미국 남북전쟁의 크로스 스테이트(Cross-State) 여행 코스처럼 진먼의 대안인 샤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면서, 진먼의 전장 관광 형성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쟁점이 전장 관광과 레저형 관광 사이의 선택이었음을 상기할 필요를 느꼈다. 진먼에서 처음 전장 관광을 만들어 갈 때, 과연 진먼의 군사시설들이 매력적인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또한, 탈냉전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냉전적 대치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전장 관광의 지속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장 관광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문제는 그것이 성공의 역설적 산물이기도 하다. 증가하는 관광객을 모두 수용하면 자원이 고갈되며, 또한 주민의 생활양식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먼 전장 관광의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해보려고 한다.

II. 진먼 전장 관광의 기반

1. 계엄령 해제와 탈냉전(1992년)

진먼은 중국 대륙과 인접한 섬으로, 1949년 10월 꾸닝토어 전투, 1954년과 1958년의 포격전, 그리고 이후의 냉전시기에 건설된 군사적 방어시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냉전의 섬’이다. 이 섬에서 이루어진 전투를 기록하고 기념하는 역사관은 냉전시기에 이미 세워졌다. 1992년 이 섬에서의 계엄해제 이후, 이런

군사적 대치와 심리전의 유산을 활용한 관광 계획이 세워지고, 이에 따른 관광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꾸닝토어 전투를 기억하기 위한 꾸닝토어전사관(古寧頭戰史館)은 바로 이 전투에서 국민당이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전쟁역사관으로, 1984년에 세워졌다. 또한, 1958년 8월 23일부터 44일간 계속된 포격전을 기념하기 위한 8·23 포격전 전사관도 1988년에 세워졌다. 냉전시기에 세워진 이러한 역사관에 더하여 탈냉전시기에 과거의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장 관광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계엄시기에 진먼 주민은 물론 타이완 주민들도 진먼을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했다. 진먼에서 실시되었던 전지정무(戰地政務)에 따르면, 진먼 여행을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했고, 교통편도 거의 없었다. 1987년에 타이완 정부가 대륙 친척 방문을 허용했지만, 중국 연해에서 진먼을 겨냥하고 있는 600문의 대포는 그대로 있었으므로, 타이완 국방부는 개방과 국가안보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1987년 타이완 본섬에서 계엄령이 해제된 후, 진먼 주민들은 진먼에서도 계엄령을 해제하고 좀더 자유로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했고, 그 결과 1992년 진먼과 마주다오(馬祖島)의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鄭根植·吳俊芳, 2015). 이 두 섬에서의 계엄 해제는 전지정무의 해체를 의미했다. 물론 계엄령 해제가 곧 진먼의 관광산업을 이끌어온 것은 아니다. ‘식칼왕(菜刀王)’이라는 호칭을 얻은 왕 텐상(王天相)은 중국에서 쏜 포탄을 사용하여 이를 빛나게 만들고 위에도 ‘8·23 포격전 기념’이라는 글을 새기면, 타이완에서 식칼 한 자루당 5,000NTD로 팔 수 있다고 말했다.¹ 이 말은 진먼의 전쟁 유적과 물품들이 진먼 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먼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이완 본섬 주민에게 진먼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하지만, 관광객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로가 마련되어야 했다. 상품이 될 수 있는 장소의 매력과 함께 자유로운 왕래와 교통수단이 필요했다.

¹ 『天下雜誌』, 「金門新戰事」, 88期, 1988. 9. 1, <http://www.cw.com.tw/article/article.action?id=5038465>(검색일: 2016. 1. 25).

2. 타이완과 진먼 간 민항기 취항(1996~2001년)

1960년대 냉전기에 진먼과 타이완 본섬을 연결하는 교통편은 정기 여객선이 일주일에 한 번 취항했고, 1970년대 중반에는 더 악화되어 8~10일에 한 번 취항할 정도로 진먼은 고립된 섬이었다. 여객선의 취항시간은 고정적이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다른 교통수단인 비행기는 모두 군용기로,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나 군인만 탑승이 가능했다. 일반 주민은 유학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간다고 해도 타기 힘들었다.² 계엄시대에 진먼 주민들은 도 내뿐만 아니라 도 외로 이동할 때도 통행증이 필요했다. 타이완 본토로 가려면, 통행 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했다. 진먼방위사령부(金門防衛司令部)에서는 1회용 ‘중화민국 타이완 진먼 지역 왕복동의서(中華民國台灣金門地區往返同意書)’를 발급했다.³

1987년 타이완에서 계엄령을 해제한 후, 국방부는 민항기를 진먼에 취항하도록 허가했다. 원래 중화항공(中華航空)이 진먼 항로에 취항할 것을 고려했는데, 진먼 주민들이 장기간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아끼는 것이 몸에 배었으므로, 값이 비싼 항공기를 잘 이용하지 않으리라는 추측에 따라 항공편 취항을 포기했다. 이후 1990년 원동항공사(遠東航空)가 타이완과 진먼의 항로를 개설했다. 당시 군용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때라 이 민항기의 취항은 진먼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1990년 6월 국방부는 진먼과 마주의 주민에게 허가증 대신에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이완과 진먼, 마주를 왕복할 수 있는 명령을 발표했다. 1992년에 진먼방위부와 현(縣)청은 ‘진먼지구 출입신청 절차규정(人民入出金門地區申請作業程序)’을 공포했고, 타이완 주민들의 진먼 여행과 친척 방문을 허가했다(金門省政府, 2009a: 182).

이후, 5개의 항공사가 끊임없이 진먼으로의 노선을 추가해 진먼과 타이완은 진정한 1일 생활권으로 재편되었다.

² 〈返鄉路60砲的部落格〉, <http://a2928796.pixnet.net/blog/post/289486703>(검색일: 2016. 1. 23).

³ 〈戰鬥金門〉, <http://www.jjes.km.edu.tw/local/b3-4-1.html>(검색일: 2016. 1. 23).



출처: 필자 촬영

그림 2 중화민국 진먼-타이완 지역 왕복 동서서

3. 진먼과 사먼 간 항로 개설(2001년)

1993년 2월 타이완 국방부와 교통부, 내정부는 진먼과 마쭈 지역의 관광 허가를 선포하고 ‘진먼과 마쭈 개방관광법(金門馬祖地區開放觀光辦法)’을 공포했다. 처음에는 관광객 수를 제한했는데, 관광업자들의 항의로 이듬해부터 관광객 수를 하루 150명에서 700명으로, 출입증 유효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1년 후 진먼 관광객의 성장률은 113.6%가 되었고, 진먼 지역 출입 통제가 해제되었다. 국내외 인사들도 신분증 또는 여권만으로 두 번 신청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했다. 이듬해의 관광객 성장률은 42.7%가 되었다.

1996년 타이완에서 최초의 총통직접선거를 할 때, 중국은 타이완을 향해 유도탄 연습을 했고, 특히 두 번째 연습에서는 진먼 서남방과 평후(澎湖) 서쪽으로 실탄 훈련을 했다. 양안 간 긴장이 커지면서 타이완 해협 위기(臺海危機)로 발전했다. 양안관계에 긴장감이 흐르자 관광객 성장률이 3.0%로 감소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군사 훈련과 양안 간 긴장이 관광객의 감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할 수 있다(陳建民, 2003: 15).

1992년 3월 중국 푸젠 성위원회 서기인 첸 광이(陳光毅)가 “샤먼과 진먼을 의미하는 두 개의 문이 서로를 열고, 마쭈도와 마웨이다오(馬尾島)를 의미하는 두 마리의 말이 선행하자(兩門對開, 兩馬先行)”는 소삼통(小三通)의 개념을 제안했다. 진먼 주민은 환영했지만, 타이완 정부는 안전문제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楊樹清, 2002). 진먼 주민들은 계엄령 해제 후 샤먼과의 소삼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장 이미지와 군사 경계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생활방식을 모색했다.

1998년 진먼의 관광업자들이 진정한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시위를 했다. 2000년 3월 2일, 타이완 입법원이 ‘낙도건설조례(離島建設條例)’ 제18조를 통과시킨 후, 시험적으로 진먼과 마쭈, 평후 지역이 중국과 통항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듬해 1월부터 ‘진먼-샤먼’, ‘마쭈-마웨이(馬祖-馬尾)’, ‘진먼-취안저우(金門-泉州)’ 등 세 개의 항로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진샤 항로는 처음에 진먼의 수이터우부두(水頭碼頭)에서 샤먼의 동두부두(東渡碼頭)로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2004년 4월 샤먼 동두부두가 국제부두로 지정되었고, 2008년 샤먼의 우통부두(五通碼頭) 항로가 추가되었다. 2009년에 진먼 수이터우부두에서 샤먼 동두부두 간에는 1일 20회, 샤먼 우통부두와는 1일 8회의 정기선이 취항했다. 이 항로를 이용해 진먼과 샤먼의 왕복 36회 정기선을 운항하고, 운항시간도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했으며, 가격도 550NTD에서 450NTD로 줄어들었다.⁴ 하지만 우통부두에서 샤먼의 변화가인 중산루(中山路)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산루 인근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은 자신의 집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30분이 소요되어 더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소삼통 항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2011년에 220만 명에 달했고, 2000~2011년간 성장률이 연 평균 14.25%였다(經建會管制考核處, 2012: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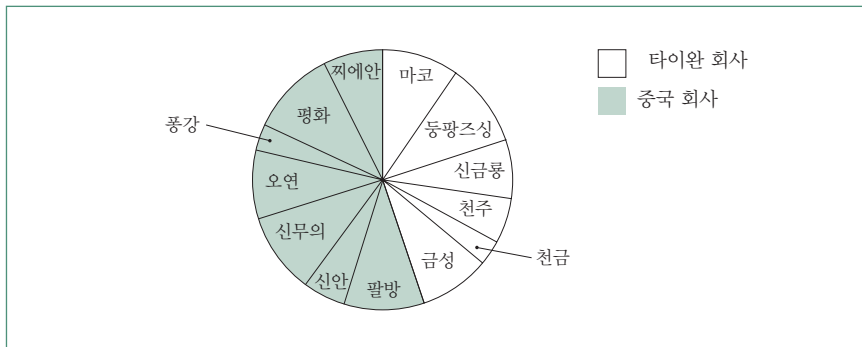
그림 4는 소삼통 항로를 왕래하는 타이완 과 중국 선박을 표시한 그림이다. 부분의 진먼 주민은 소양안을 왕복할 때 타이완 회사의 배를 선호하는데, 그것은 배 운임이 항상 할인되기 때문이다. 타이완 회사가 운영하는 동팡즈싱

⁴ 『中時電子報』, 「小三通改走五通碼頭 半小時到對岸」, 2014. 4. 25.



출처: 사진은 사이트 <留在金門忘了飛>⁵ 참조하고 필자가 보충 설명함.

그림 3 진먼의 소삼통 항로(2001년과 현재를 구분하여 표시)



출처: 진먼항무국(金門港務局).

그림 4 2014년 양안 소삼통 선박 이용률

⁵ <http://visitkinmen.pixnet.net/blog/post/5381881>(검색일: 2016. 8. 9).

(東方之星) 호가 진먼 주민에게 50%를 할인해주자 대부분이 이를 이용했고, 중국 선박 회사들이 이에 항의했다. 이에 따라 동광즈싱 호의 진먼 주민에 대한 할인을 35%로 줄였다. 그렇지만 중국 선박 회사는 진먼 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진먼 주민들은 여전히 타이완 선박 중에서 동광즈싱 호를 타는 사람이 많다.

III. 관광 계획과 관광자원 개발

1. 관광진흥계획의 출현

1990년, 진먼에서 아직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타이완 관광국은 ‘진먼 지역 관광자원 조사 및 전체 발전 계획(金門地區觀光資源調查與整體發展計畫)’을 작성하여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계획에서는 진먼의 군사 시설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관광자원이며,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진먼의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1992년에는 타이완 관광국이 ‘타이완 지역 관광 여행의 체계적 개발 계획(台灣地區觀光遊憩系統開發計畫)’을 작성했는데, 낙도들을 ‘뤼다오와 란위 계통(綠島, 蘭嶼系統)’, ‘평후 계통(澎湖系統)’, ‘진먼과 마쭈 계통(金馬系統)’ 등 3개의 관광지구로 나누었다. 그러나 진먼과 마쭈 지역은 국가 안보의 요충지라서 다른 지구와는 달리 관광국 외에 국방부도 계획과 추진에 참여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을 관광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범위를 연구했다.

1995년, 냉전시기에 진먼이 가지고 있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에서 전쟁 역사를 주제로 한 유일한 국가공원을 진먼에 설립했다. 이 공원은 타이완의 제6번째 국가공원이다. 진먼국가공원이 관할하는 지역은 진먼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꾸닝토어 구역’, ‘타이우 산(太武山) 구역’, ‘구깡(古崗) 구역’, ‘마산(馬山) 구역’, ‘샤오진먼(小金門) 구역’ 등 5개 지구로 나뉘어진다. 이 5개의 구역은 모두 양안전쟁 때의 군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있고, 일반 역사 유적과 자연 자원도 있기 때문에 국가공원 당국은 이 세 요소를 결합하여 복



출처: 국가공원 참조.

그림 5 꾸닝토어 복합 관광 지구의 구성

합적인 관광 지구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꾸닝토어 전투와 8·23 포격전(八二三砲戰) 두 전역의 전쟁 유적을 중심으로 인근의 고적과 마을, 그리고 자연 경관을 한데 묶어서 테마 지역을 만들었다(水牛設計部落有限公司, 2010: 5). 진먼의 서북쪽에 있는 꾸닝토어 마을은 1949년 국공내전 시에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이 진먼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다. 이 전사관을 중심으로 파생된 전쟁 유적들이 ‘베이산양루(北山洋樓)’, ‘리 콩치엔 장군묘(李光前將軍廟)’, ‘후 렌 장군 기념관(胡璉將軍紀念館)’, ‘배뢰기념비(排雷紀念碑)’, 그리고 ‘심리전 방송벽(心理戰播音牆)’ 등이다. 또한 이 지역에는 난산(南山)과 베이산(北山) 마을의 인문풍속을 결합하여 진먼의 자연자원을 소개하는 쌍리자연습지센터(雙鯉濕地自然中心)도 있다.

진먼국가공원이 설립되면서 작성된 ‘진먼특정지역계획(金門特定區計畫)’(1995)에 의하면, 진먼의 관광 체계는 국가공원 체계와 지방 체계로 나뉜다. 국가공원 체

계는 주로 내정부가 계획하는 것이고, 지방 체계는 진먼 현청이 계획하는 것이다.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진먼은 더 이상 군사행정 체제가 아니라 일방행정 체제로 전환되었고, 진먼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6년의 ‘국토종합개발계획(國土綜合開發計畫)’과 ‘진먼생활권종합발전계획(金門生活圈綜合發展計畫)’이 작성되었다. 진먼은 지방 생활권에 포함되었지만, 동시에 ‘전국 혹은 양안 역사, 문화, 관광의 특구 및 생활권’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타이완의 낙도관광개발(台灣地區離島觀光系統發展規劃研究)과 이에 따른 진먼의 수정계획(修訂金門縣綜合發展計畫)을 보면, 1999년부터 진먼의 지리적 특성과 진사(金沙) 지역의 통합발전을 강조하고, 또한 관광자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金門縣政府, 2009b: 349-357).

2000년에 타이완 입법원이 통과시킨 ‘낙도건설조례’는 총 20개다. 이 중에서 진먼 관광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가 네 가지 있다. 하나는 지뢰제거조례(排雷條例)다. 진먼이 장기간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군사적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먼에서는 1949년 이후 공산당의 상륙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300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에 10만 개의 지뢰를 묻었다. 이 지뢰는 진먼을 방어하고 생태자원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지만, 관광객들은 지뢰가 매설된 상태에서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 곳을 찾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낙도건설조례’의 제9조에서 지뢰 제거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뢰가 제거된 안전한 토지를 진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했다(오준방·정근식, 2014).

둘째, 타이완과 중국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낙도 지역의 관세와 영업세 면제의 특혜를 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에는 진먼에 최초의 면세점 ‘에버그린 진후광장(昇恆昌金湖廣場)’이 창립되었다.

셋째, 낙도 개발에 대해 큰 도움이 된 것이 바로 ‘낙도건설기금(離島建設基金)’조례다. 이 기금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2001~2010년까지 무려 2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제1기(2003~2006년)의 낙도 건설 목표 중에 진먼을 ‘국제관광 레저 섬’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실제로 2000~2010년 동안 관광객의 성장률이 99.07%에 달했고, 진먼 현은 70.0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經建會管制考核處, 2012: 45). 이것은 전체 보조금의 32.86%로, 진먼은 낙도

들 중에 가장 많이 보조를 받은 섬이 되었다.⁶ 2010년에는 진먼의 군사적인 자원을 재활용하여 관광수익을 높이기 위해 낙도건설기금의 보조에 의해 진먼 현청에서 비어 있는 군영의 활성화 계획을 진행하기 시작한다. 2015년 타이완국가발전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해 2015년 진먼의 관광객 수가 39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면 낙도건설기금이 확실히 진먼의 발전에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된다.⁷

마지막으로 진먼 관광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례가 바로 양안의 시험적항로 개발, 즉 소삼통이었다. 이것은 2001년에 실시되었다. 소삼통이 실시된 이후 2004년 ‘진먼현관광발전총체적계획 1차 검토(金門縣觀光發展整體計畫第一次通盤檢討)’에 의해 진먼의 관광은 4구역으로 구분되었고,⁸ 2007년부터 시작된 전면적인 지뢰 제거 계획에 따라 ‘해안휴식(海岸遊憩)’도 주요 관광 항목에 포함되었다. 소삼통과 대삼통을 고려해서 진먼 현의 총체적인 발전 전략은 ‘국제관광 레저섬’을 목표로 삼았다(金門縣政府, 2007: 357-360).

2. 전장 관광자원: 가시적 시설과 비가시적 자원

진먼의 전장 관광자원은 크게 군사적 시설과 군사적 통제로 형성된 냉전생태, 그리고 군사문화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적 방어시설과 전쟁 박물관들은 가시적이며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담론을 가진 자원들이다. 이 시설들은 진먼 냉전 경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며, 탈냉전에 따라 다시 복원되고 재활용된다. 특히 진먼 서쪽은 중국 샤먼과 가까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군사시설들이 전장 관광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진먼 서북쪽에 있는 츠후(慈湖)와 꾸닝토어 지역의 바닷가에 이런 시설들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서 관광버스의 B코스 ‘꾸닝토어전장코스’가 되었다.⁹ 이 지역은 진먼 전장 관광이 가장 일찍 발전하고 전

⁶ 好房網, 「離島建設基金補助, 金門最多」, 2012. 6. 25, <http://news.housefun.com.tw/news/article/1151622649.html>(검색일: 2016. 1. 23).

⁷ 國家發展委員會, 〈離島地區永續發展與創新亮點〉, 行政院 第3496次 會議.

⁸ 북쪽은 진사진과 진닝진이 군사와 자연 자원을 주로 하고, 서남쪽은 인문과 자연 자원, 동남쪽은 산업자원을 주로 한다. 그리고 샤오진먼다오는 전쟁자원을 주로 한다.

⁹ 2007년부터 시작된 진먼관광버스는 총 4코스가 있다. A코스는 슈이터우-자이 산 코스이고, B코



출처: 필자 촬영.

그림 6 전장 관광의 가시적 자원들(츠후의 벙커와 용치)

장 관광자원이 가장 완비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전장 관광자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가시적인 군사시설이다. 이 지역의 군영과 벙커가 진면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관광자원으로 재활용된 군영은 세 개이고 벙커는 두 개다. 츠후에 있는 삼각보(三角堡) 벙커가 중국 샤먼의 공격에 대한 첫 방어시설이라서 관광 개방 이후 샤먼을 바라보는 전망 지점이자 여기에 오는 철새들을 관찰하는 명소가 되었다.

이 벙커의 주변은 완벽한 3중 방어기제를 구성했다. 즉, 제일 바깥에 있는 방어선은 얇은 여울에 설치되는 장애물(궤조제 또는 rail obstacles)과 천연 방어 식물인 경마(瓊麻, 용설란과)이고, 두 번째는 지뢰가 가득한 지뢰밭(mine field)이다. 마지막 방어선은 바로 벙커다(오준방·정근식, 2014: 12). 츠후 자체도 방어 기능을 갖추는 호수다. 1969년 공산당군이 샤먼에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550미터의 해안 제방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원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바다가 둘로 분할되었다. 현재는 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삼각보 주변에 일부러 퇴역한 탱크들을 나열하여 전시하고 있다.

전장 관광에서 군사적 방어시설들이 과거의 역사를 ‘몸’으로 보여준다면, 전쟁역사관들은 ‘언어’로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는 곳이다. 꾸닝토어전사관은 진면의 서쪽에 있고 8·23 전사관은 동쪽에 있다. 꾸닝토어전사관은 국민당군과 공

스는 고령두전장 코스, C코스는 타이우 산-진사진 코스, 그리고 D코스는 룡원(榕園)-타이후(太湖) 코스다.

산당군의 치열한 싸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국민당 정부의 승전 기억 홍보의 원천적 장소이며, 양안 분단의 실감을 생산하는 장소다. 특히 총탄 구멍이 가득 한 서양식 건물의 폐허와 전쟁기념관이 이 전투를 잘 재현하고 있다.

8·23 전사관은 1958년 양안 간 포격전과 심리전을 재현하는 장소로, 진먼의 가장 높은 산이면서 국민당 군대의 주요 지휘소였던 타이우 산 기슭에 있다. 이 전사관은 꾸닝토어기념관과 같이 양안 대치의 상징이자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장소로 진먼이 냉전 속 열전의 현장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특히 타이완 관광객들은 이곳에 들러 냉전과 분단의 역사를 되새긴다. 전사관의 담론은 평화보다는 전쟁을 말하며, 패배가 아닌 승리의 역사를 말하며, 주민보다는 군대와 지휘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담론을 만들어가는 특징이 있다.

전장 관광을 구성하는 자원은 이러한 가시적이고 과거의 전쟁을 증언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군사적 통제 때문에 비의도적으로 형성된 환경과 경관을 포함한다. 진먼의 군사시설은 주로 방어용 시설로, 철벽같은 방어기제가 진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도 지켜 주었다. 공산당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마련된 지뢰는 진먼 주민의 접근 통제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동시에 지역개발을 억제했다. 해안도로는 탱크용 궤도로 개설되었고, 해안의 상륙 방지용 용치와 산림이나 전답의 공중낙하 방지용 피뢰침들이 독특한 냉전 경관을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진먼은 자연 경관을 잘 보존해온 장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 빨리 발전하고 도시화한 샤먼과 강렬하게 대비되어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다.

또한, 전장 관광에서 중요한 것은 여행의 흔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념품이다. 진먼은 냉전 시기의 군사적 근대화에 따라 특별한 군사경제가 발전했다. 가장 유명한 냉전산업은 바로 고풍주 산업과 포탄 칼 제조업이다. 앞에서 언급한 우 씨의 가족은 청나라 때부터 칼 제조에 종사해 온 장인으로, 1937년에 지금의 칼 회사를 설립해서 처음에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군이 일본군에게 투하한 포탄 탄피로 칼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8·23 포격전에서 공산당군이 발사한 포탄 탄피로 칼 제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 씨는 방문자들을 위해 칼의 제조 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의 탄피로 40~60개의 칼을 만들 수 있다. 관광객들은 칼 자체보다 그 속에 포함된 이야기를 사는 것이다. 특히 가게

뒤에 있는 대장간과 쌓여 있는 탄피들은 전장 관광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핵심 요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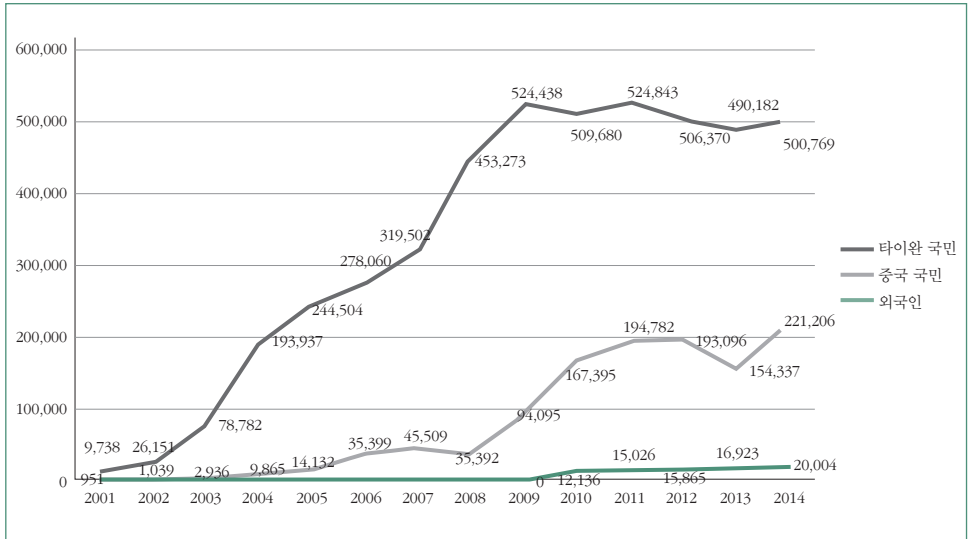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알려진 전장 관광의 상품은 진먼고량주다. 탄피 칼 제조업은 개인적인 사업이지만 고량주 제조업은 공공사업이다. 이 고량주는 군대에서 민간인 예화청(葉華成)으로부터 얻은 시설과 방법으로 만들기 시작해 점차 확장된 것으로, 공공사업이면서 오늘날 진먼 주민복지의 원천이 되었다. 냉전 시기부터 고량주는 군인에게 큰 인기상품으로, 타이완 본섬으로 들어갈 때 꼭 사야 하는 기념품이었다. 그들에게 고량주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객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약이고 본섬에서 살 수 없는, 한정품이었다. 관광 개방 이후 진먼고량주는 지속해서 과거와 현재를 기념하는 제품을 만들고, 현지 소비용과 외부 판매용을 구분하는 전략에 따라 현지 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해왔다. 진먼고량주회사의 연 수익은 100억 타이완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재원이 되었다.

3. 전장 관광의 발전

1992년 진먼에서 계엄령이 해제된 후 발전하기 시작한 관광산업은 초기에 타이완 관광객에 의존했는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진먼 현청과 주민은 점차 대륙으로 오는 관광객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1995년부터 관광 가이드를 해온 채용영(蔡容英) 씨는 진먼의 관광객 구조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년 전 제가 가이드를 처음 시작할 때는 타이완 관광객만 있었고, 중국 관광객이 없었다. 그 때는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었다. 타이완 관광객들은 거의 다 단체여행객이었다. 타이완에서 주 5일제를 실시한 후에야 배낭여행객이 나타났다. 육객(陸客,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은 처음에는 고위층 공무원들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교류를 명분으로 진먼다오에 왔다(가이드 채용영 씨 인터뷰).

타이완에서는 1998년부터 격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했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타이완 주민의 생활양식이 변화



출처: 중화민국행정원대륙위원회(中華民國行政院大陸委員會), 필자 정리.

그림 7 진먼 소삼통의 출입국 연 인원수

하고 관광오락산업은 급속하게 팽창하게 된다(黃振誼 외, 2011: 67). 주 5일제를 실시한 후 진먼을 찾는 타이완 본섬 주민이 많아졌는데, 이들은 주로 전쟁 유적을 보러 왔다. 특히 자기나 가족들 중에 진먼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이 진먼을 많이 찾았다. 이들은 전쟁역사관을 꼭 방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일종의 추억 관광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008년 6월 19일 타이완 행정원에서 ‘소삼통인원왕래 정상화실시방안(小三通人員往來正常化實施方案)’을 통과시켜, 타이완 주민이 여권 등 증명서를 가지고 소삼통을 활용하여 중국을 왕복할 수 있게 했다. 이 때문에 소삼통을 이용하는 인원이 급증했다.¹⁰ 그림 7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타이완 주민과 마찬가지로 중국 국민도 2008년부터 소삼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2008년 9월 말에 양안 정부가 중국 국민이 소삼통을 통해 타이완에 입국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결정은 중국 관광객이 진먼보

¹⁰ 大紀元, 「台擴大小三通 馬英九不贊成金門撤軍」, 2008. 6. 20.

다 타이완 본섬으로 여행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방안을 실시하기 전에 타이완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은 하루에 300명도 안 되었으나, 이 방안이 발표된 후 타이완 본섬을 향한 여행객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장소는 타이완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과 다르다. 우선 이들은 전쟁역사관을 즐겨 찾지 않는다. 진먼 주민들은 중국 정부에서 대륙의 관광객들에게 전쟁역사관은 참관하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다고 믿는다.¹¹ 여행 가이드는 중국 관광객, 특히 고위층 공무원들을 안내할 때 사용하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항상 옆에서 서기(書記)가 설명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국내’라고 말해야 한다. 서로의 관광 교류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가이드들은 용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안내를 한다.

설날 휴일 기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크게 감소한다. 보통 중국 관광객은 청명절(清明節, 음력 4월 4~5일) 이후 진먼을 많이 찾아온다. 매년 7~10월은 중국 관광객이 많아서 진먼 관광의 성수기가 되었다. 나머지 달은 주로 타이완 관광객들이, 특히 배낭여행객들이 찾아온다. 이 때문에 관광객의 계절별 분화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 관광객 중에 타이완에 가려는 사람들이 진먼을 경유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진먼이 체류지가 아닌 경유지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소삼통이 진먼의 경제 발전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진먼 현청에서 여행사들에게 중국 관광객을 적어도 하룻밤 머물게 하라고 제안하고, 관광객 한 명당 150NTD의 인센티브를 주어 체류 여행을 장려했다. 관광 가이드 채용영 씨의 말에 따르면, 적어도 5년 전인 2010년부터 이런 인센티브제를 실행했다.

2016년 1월,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승리한 이후, 중국 정부는 3월 1일부터 단체 관광객 수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고 한다. 이것이 공식 발표인지 단지 소문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모두 아직 실감나지 않지만, 만약 중국 정

¹¹ 인터뷰 대상자의 증언과 장 보웨이(江柏煒)의 ‘地方史與全球史的連結: 金門研究的價值(初稿)’, 중국 관광객의 블로그를 분석해 보면, 그런 불문율이 있다고 생각된다.

부가 정말 이런 조치를 한다면, 진먼보다 타이완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V. 언론 보도와 취향의 형성

1. 타이완 신문에서의 진먼 관광 보도와 타이완 관광객의 취향

2015년 한 해 동안, 타이완의 신문 『중시전자보(中時電子報)』에 실린 진먼 관광에 관한 기사는 46편이었다. 그 중에 ‘전장’과 ‘소삼통’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았다. ‘전장’은 타이완 대중 매체들이 진먼을 다룰 때 꼭 언급하는 단어다. 국공내전 때 진먼은 타이완보다 더 심각한 ‘전장’이었고, 수많은 타이완 남성에게 악몽의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진먼은 최전선이어서 위험한 장소였고, 죽은 자들과 연관된 귀신 이야기가 많은 장소였다. 한 유명 연예인 첸 웨민(陳為民)이 TV와 책을 통해서 진먼의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진먼은 단순한 ‘전장’ 이미지를 넘어서 좀 더 신비한 장소감을 갖게 되었다. 진지하고 엄숙한 역사와 오락성이 있는 귀신 이야기 때문에 개방 전부터 타이완 본섬 사람들에게 진먼은 신비한 장소로 이미지화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비함이 진먼 관광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2015년 진먼 현청에서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진먼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명소 찾기(金門必訪景點擂台pk賽)’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작은 보트로 물품을 보급하던 자이산 갱도(翟山坑道)가 1위로, 쥐광루(莒光樓)와 타이우 산이 그 다음으로 선정되었다. 10개의 명소 중에 양안 전쟁에 관련된 장소가 다섯 군데나 포함되었다.¹² 이를 보면, 타이완 관광객들에게 진먼의 전장 관광은 상당한 매력과 시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이산 갱도에서 2009년부터 갱도음악회를 여는 등, 전쟁 유적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매력 증진 프로젝트는 더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오는데 기여했다.

¹² 『中時電子報』, 「金門戰地夯點 翟山坑道奪冠」, 2015. 8. 29.

2015년 ‘소삼통’에 관한 보도기사는 약 11건이다. 특히 1월 1일부터 중국 관광객이 랜딩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되어, 소삼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2014년보다 16% 증가한 176만 2,411명이었다. 그 중에 중국 관광객이 69만 2,181명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그 중에 랜딩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6만 6,272명이다.¹³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2015년에는 이들을 위한 면세점과 약국(pharmacy), 화장품점, 마트, 심지어 샤먼보다 먼저 애플스토어(Apple Store, 애플사 핸드폰과 컴퓨터를 판매하는 매장)를 열었다.

타이완 단체여행객은 보통 배낭여행을 하고 2박 3일 진면에 머무는데, 전장과 귀신 이야기 외에 또 하나의 유인이 바로 음식이다. 진면 음식은 전쟁과 관련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전쟁기에 쌀이 귀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쌀을 죽으로 만들어 먹었다. 이것이 광동죽(廣東粥)이다. 수많은 사병을 위해 빨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라면과 다른 식재를 같이 볶은 ‘볶음라면(炒泡麵)’, 후렌(胡璉) 장군이 고량(高粱)을 쌀로 바꾸어 주는 정책으로 발전한 고량주도 있다. 이 전장 음식들은 타이완 관광객과 중국 관광객의 취향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타이완인들의 여행 블로그에는 대부분 음식 사진이 크게 나온다. 타이완인에게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익숙했지만 진면의 전쟁 유적과 민난(閩南)식 건축은 생소한 것이어서 대조를 이루는 자원이 된다. 진면은 타이완 본섬 주민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타이완 본섬 주민은 주로 과거의 양안 전쟁에 대해 방송 매체나 진면에 와 본 적이 있는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다. 1949년 국민당을 따라 타이완에 온 군인들 외에 타이완 본섬에서 태어난 남성은 군복무를 해야 했는데, 당시 젊은이들이 군 입대 후 근무지 배치에서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금마장(金馬獎)’¹⁴을 타는 것, 즉 진면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면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은 제대 후 가장 힘든 군 복무의 기억을 그리워하며, 이를 되새기기 위해 종종

¹³ 『中時電子報』, 「金門小三通人數 今年再創歷史新高」, 2015. 12. 31.

¹⁴ 타이완에서는 제비뽑기로 군 복무지를 결정했다. ‘금마장’은 원래 1960년에 시작된 대표적인 반공영화제의 영화 대상 이름으로, 이 영화제는 ‘진면’과 ‘마쭈’ 두 낙도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 붙였다. 군 복무지로 진면다오나 마쭈다오가 결정되면 이들은 무척 낙담하는데, 이를 반어법으로 표현한 것이 ‘금마장’을 타는 것이었다.

진면을 방문한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대동하고 진면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 필자가 인터뷰한 사람들에게 따르면, 타이완 관광객은 전지의 추억과 레저를 위해 진면에 오고, 중국 관광객은 주로 ‘쇼핑’을 위해 온다.

2013년 진면 현청에서는 ‘진면전지관광예술절(金門戰地觀光藝術節)’이라는 행사를 열고 ‘노병고사관(老兵故事館)’을 개관하여 ‘진면 백만대군이 영웅도로 돌아온다(金門百萬大軍 重返英雄島)’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주로 진면에서 군 복무했던 노병(老兵)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추억을 말하게 하고, 이를 통해 향수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영화, 핸드폰 앱, 그리고 여러 가지 군대 게임으로 노병뿐만 아니라 일반 진면 주민과 본섬 주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오락 유형의 전쟁 관광은 과거의 학습형 전쟁 관광보다 관광객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외에 ‘갱도음악회(坑道音樂會)’, ‘광화원 심리전 자료특별전(光華園心理戰特展)’, ‘진동극장 옛날 영화보기(金東戲院老電影欣賞)’ 등 과거의 군사시설을 이용해서 음악회나 전쟁 현장을 다시 느끼게 함으로써 관광객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했다. 또한, 일부 군사지역은 중국 대륙인들에게는 개방하지 않고, 타이완 주민에게만 개방해서 이들에게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극하기도 한다.

타이완 관광객에게 진면의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맨눈으로도 보이는 ‘대안’의 풍경이다. 필자는 타이완 본섬에서 출장온 한 관광객을 꾸닝토어전사관 앞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공무를 끝내고 한나절의 진면 관광을 하려던 참이었고, 꾸닝토어전사관은 그의 첫번째 방문 장소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렸을 때 교과서를 통해서 알게 된 진면과 대안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꾸닝토어에 왔어요. 회사 동료가 옛날에 진면에서 군 복무를 해본 적이 있어서 구경할 만한 곳을 소개해줬어요. 8·23 전사관도 꼭 가고 싶어요. 사실은 대안도 보고 싶었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샤먼이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타이완 관광객 A씨 인터뷰).

타이완 본섬 주민이 진면에 와서 가장 신기하게 느끼는 것이 중국 대륙이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진면과 중국이 이렇게 가까운데도 진면이 타이완의 섬이라는 것이 신기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양안 간 중요 전투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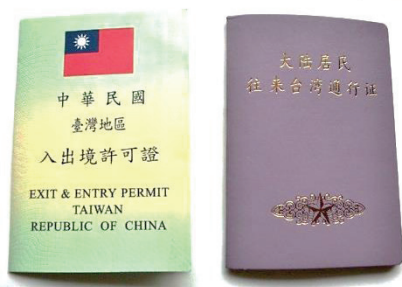
2. 샤먼에서의 진먼 관광 보도와 대륙 관광객의 취향

샤먼의 유명한 여행 코스 중에 ‘바다에서 진먼을 바라보는(海上看金門)’ 코스가 있다. 이것은 샤먼과 가까운 진먼의 몇 개 섬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완에 속하지만 중국에 가장 가까운 다단다오(大膽島)에는 ‘삼민주의통일중국(三民主義統一中國)’이라고 쓴 큰 입간판이 있고, 타이완의 국기 ‘청천백일기(青天白日旗)’도 있어서 이 곳을 지나는 항로는 유명한 여행 코스가 되었다. 샤먼에서도 ‘일국양제·통일중국(一國兩制·統一中國)’이라는 빨간색 글씨로 쓴 입간판이 샤먼 해안과 다덩다오(大嶝島)에 있다. 관광객들은 이들을 보면서 냉전 시기의 심리전을 회상하고 중국의 미래에 대한 긴장감을 느낀다.

중국 관광객이 진먼에 여행을 오려면 ‘대륙주민 타이완 왕복 통행증(大陸居民往來台灣通行證, 약칭 대통증)’이 있어야 하고, 진먼에 입국할 때 ‘입진증(入金證)’도 신청해야 한다. 입진증은 진먼과 마주, 그리고 평후(澎湖) 등 낙도만 갈 수 있는 통행증으로, 이를 가지고 있으면 진먼에 15일간 머무를 수 있다. 하지만 타이완에 입국하려면 ‘입대증’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입대증은 타이완의 모든 지역(진먼 포함)에 갈 수 있는 통행증이다. 중국 주민들이 소삼통을 이용해서 타이완에 가려면 보통 입대증을 신청한다.

진먼을 찾는 중국 여행객 중에는 배낭여행객이 많은데, 이들이 진먼에 오면 항상 관광버스나 자전거 혹은 전기 스쿠터를 이용한다. 자전거는 입진증만 보여주면 무료로 3일을 빌릴 수 있다. 보통 대륙의 배낭여행객은 짧은 휴가기간에 진먼을 선택하는데, 휴가가 길면 타이완으로 여행을 간다.

중국 관광객도 전장에 관심이 있지만 타이완 관광객보다는 적다. 오히려 두 집단이 모두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핸드폰의 소통 범위로 느끼는 거리감이다. 진먼은 샤먼과 매우 가까이



출처: 필자 촬영.

그림 8 입대증과 대통증

서 진먼의 어떤 지역이든지 중국 통신사의 신호를 받을 수 있다. 진먼과 가까운 샤먼의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로여서 양안 관광객들이 이를 매우 신기하게 생각한다.¹⁵

중국 관광객이 가진 진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먼 사람들이 친절하고 열정적이라는 점, 진먼의 환경이 조용하고 깨끗하다는 점, 그리고 물가가 싸고 품질이 좋아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중국 관광객들은 진먼의 물가가 ‘배추값’이라는 농담도 한다.¹⁶ 급속하게 도시화된 샤먼의 주민에게 진먼은 여전히 ‘시골’이지만, 자연 환경이 좋아서 샤먼 사람들의 ‘뒷마당’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반 중국 관광객은 양안 전쟁에 관한 역사관을 가기 어렵다. 특히 단체 관광객은 전사관을 구경하지 못한다.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동 즈창(董自強)과 황 즈추안(黃紫川)의 증언에 따르면, 2011년 중국 관광객에게 타이완 자유행(自由行, 즉 배낭여행)을 허용한 후, 몰래 전쟁역사관을 구경하고 싶다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했다.

중국 단체 여행객은 전사관을 구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유행의 육객이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도 데리고 가야지. 우리는 서비스업이니까 손님이 원하면 보여줘야지.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역사를 설명한다(여행 가이드 동 즈창 씨 인터뷰).

옛날에 해방군을 했던 중국 사람이 이곳을 보고 싶어하지. 지금의 젊은이들은 이 역사에 대해 거의 모르고 관심도 없다(여행 가이드 황 즈추안 씨 인터뷰).

황 씨의 증언처럼 중국의 젊은이들은 양안의 전쟁 역사에 거의 관심이 없다. 예를 들어, 필자는 중국 사이트에서 중국 여성 두 명의 진먼 1일 배낭여행기를 분석해보았다. 그들은 관광버스를 타고 8·23 포격전 전사관에 가서 관광버스의

¹⁵ 〈百度旅游〉, http://lvyou.baidu.com/notes/de439bad52baf34409b2f5f8?sid=8bc6c1ecdeb81cc848362df5?request_id=3445568601&idx=6(검색일: 2016. 1. 31).

¹⁶ 〈百度旅游〉, http://lvyou.baidu.com/notes/cebce1e45ad4cb1cdbc0e75e?sid=8bc6c1ecdeb81cc848362df5?request_id=3445568601&idx=5(검색일: 2016. 1. 31).

가이드가 8·23 포격전의 역사를 설명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특히 중국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대충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들의 무관심을 표현한 단적인 사례는 ‘8·23’을 계속 ‘8·13’으로 쓰는 것이었다.¹⁷ 중국의 젊은이들은 전사관 같은 곳은 엄숙하고 심심하다고 생각하므로, 이것도 진면의 전장 관광을 수정할 때 다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되었다. 그러나 전장 관광은 원래 엄숙하고 진지한 것인데 너무 편하게 만들면 오히려 그 역사의 진실성과 의미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었다. 여행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싸오 웨창(邵維強) 씨는 이 점을 우려했다.

스산포 진지(獅山砲陣地)의 대포 발사 공연은 원래 의미있고 관광객들에게 전쟁 현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는데, 포격수들 중에 여자가 많아서 오히려 웃음거리가 된다고 생각한다(여행사 사장 싸오 웨창 씨 인터뷰).

스산포 진지가 2011년 8월에 본격적으로 개방되어 진면에서 유일하게 대포 발사 공연을 하고 있다. 이 공연이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진면에 오면 꼭 봐야 하는 공연으로 간주되었다. 이 공연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연출되는데, 출연자 중에는 결혼이주 여성과 여대생이 많다. 군인들이 다 남자였는데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여자를 고용하여 공연하는 것은 진실성이 떨어지고 관광객이 제대로 전쟁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심지어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대륙에서 온 여성도 있었다.

중국 관광객은 대부분 양안의 전쟁 역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전쟁유적을 보러 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여자들은 전쟁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고, 전쟁역사관을 그저 관광 명소의 하나로만 바라본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쇼핑이다. 필자가 꾸닝토어전사관 앞에서 배낭여행으로 온 5명의 중국 여성을 만나 인터뷰했다.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방문한 곳인데... 민박 사장님이 여기가 가장 가깝다고 해서

17 〈百度旅游〉, <http://lvyou.baidu.com/pictavel/3ea4f520d7b5f3d241b639b7>(검색일: 2016. 1. 31).

왔어요... 사실은 이 곳이 뭐하는 곳인지 아직 잘 몰라요...(중국 관광객 B 씨 인터뷰).

인터뷰할 때 다른 일행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필자를 보고 있었고, 필자가 간단하게 이 전사관에 대해 소개해주겠다고 할 때도 그녀들은 괜찮다고 했다. 필자가 중국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가야 한다며 떠났다. 꾸닝토어전사관이 양안 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장소라 그녀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 여성 관광객에게 이 장소는 단지 하나의 의례적인 구경거리였다. 그러나 중국인 장년 남성에게 이 장소의 의미는 좀더 각별할 수 있다. 특히 양안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진면에 대한 감정이 다르다.

보통 나이 좀 많은 중국 손님들이 전사관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요. 한 번은 60년 동안 공산당 당원으로 일한 중국 손님이 놀러왔어요. 그는 전쟁 유적들을 너무 좋아하고 기념품 가게에서도 국민당 당휘를 사고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또 한 번은 중국 산둥(山東)에서 온 손님이 꾸닝토어전사관을 구경하고 난 후 내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그 손님이 싫다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손님의 아버지가 꾸닝토어 전투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택시 기사 지 자싱(紀家興) 씨 인터뷰).

꾸닝토어 전투는 양안을 분단한 중요한 전투였다. 타이완 노병들이 승리와 영광의 기분으로 진면에 찾아오는 데 비해 중국의 인민 해방군 출신들은 패배의 장소였던 진면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찾아온다. 중국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百度)에 ‘진면’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바로 ‘국공내전 때 왜 진면을 해방하지 못했어?’, ‘진면은 샤먼과 가까운데 중국이야, 타이완이야?’라는 질문이다. 진면이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국민당의 삼민주의(三民主義) 사상이 관철되는 곳이라서 관광하러 와도 아직도 ‘적의 진지’에 온 것처럼 조심스럽고, 민감한 장소나 구호를 피하는 해방군 출신 관광객도 있다.

어떤 손님이 해방군 29사단의 의무대 출신이었어요. 옛날에 진면을 공격하는 작전에 참여했어요. 미군 탱크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라고 하자 싫다고 했어요. 그 손님은 버스 정류장에서는 사진을 찍어도 민감한 곳에서는 안 찍는 거예요(택시 기사

지 자싱 씨 인터뷰).

택시 기사인 지 자싱은 이 손님이 왜 사진을 찍지 않는가를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국 여성들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대부분 쇼핑에 더 관심이 많다. 여행 방식에 따라 쇼핑 장소가 약간 다르다는 점도 흥미롭다. 단체 여행객은 보통 면세점과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하고, 배낭여행객은 주로 시내에 있는 약국 화장품과 마트, 편의점에서 쇼핑을 한다. 이들은 고가의 면세 상품과 애플의 핸드폰, 컴퓨터뿐만 아니라 마스크팩, 분유, 설거지 스펀지, 걸레 등 일상용품도 많이 구매한다.

내륙 쪽 사람만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샤먼 사람도 일상용품을 많이 사가요. 더 싸니까요. 50~60대 손님들은 별로 쇼핑을 하지 않고, 보통 젊은 부부들이 많이 쇼핑하죠. 하지만 대부분 일상용품을 구매해요. 소비력이 가장 좋은 손님은 회사여행으로 오는 손님들이에요. 그들이 항상 고가의 면세상품을 사요(가이드 채용영 씨 인터뷰).

내 손님들 중에 구매 대행업 종사자가 있는데, 샤먼 여자입니다. 1년에 5~6회 정도 진면에 와요. 대부분은 화장품 같은 여성 용품을 구매해요. 분유를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그 손님들은 관광명소보다 자연을 더 좋아해요(택시 기사 지 자싱 씨 인터뷰).

대부분 중국인들은 타이완 상품이 질이 좋고 더 싸서 진면에서 쇼핑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특히 몇 년 전에 중국에서 독분유 사건이 일어나 중국인들이 유아용품에 관심이 커졌고, 이 때문에 홍콩과 타이완에서 분유를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생겼다. 진면의 분유 대행업자들은 부두 밖이나 매표소에서 샤먼으로 가려는 사람에게 인민폐 100원의 수고비를 지급하면서 분유를 샤먼에 운반해주도록 부탁한다. 중국 쪽 수요가 많아서 이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부두에서 이를 통제하자, 일부 대행업자들은 배에서 승객에게 물품을 샤먼으로 운반해달라고 교섭하게 되었다.

중국 관광객의 구매력이 커지면서 타이완의 백화점 재벌은 2014년 5월 5일, 진먼 최초의 면세점 ‘에버리치(昇恆昌, Ever Rich)’를 개점했다. 이 백화점은 진먼 최초의 5성급 호텔과 연계되어 있다. 이어서 7월에는 풍사야 프라자(風獅爺廣場, Wind Lion Plaza)도 개장했다. 에버리치 사는 타이완에서 가장 큰 면세점 회사이고 고가의 면세 상품을 판매한다. 이 백화점은 진먼의 변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한적한 곳에 있다. 따라서 일반 배낭여행객은 별로 가지 않고, 대신 호텔에 묵는 단체 관광객이 주로 이용한다. 풍사야 프라자도 시내에 있지 않고 공항 근처에 자리잡아서 주로 단체 관광객이 많이 간다.

4. 전장 국경 관광에서의 상호작용

진먼은 일반적인 전장이 아닌 경계에 있는 전장이었으므로, 여기의 전장 관광은 국경 전장 관광, 또는 경계(邊境) 관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관광은 분단과 대치상태로 인해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주민들을 만나게 하여 새로운 상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또 대안인 샤먼에 영향을 미쳐 유사한 전장 관광을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과정이기도 하다. 전장을 미시적·수행적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거시적·구조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냉전의 섬’인 진먼이 탈냉전을 경험하면서 주민의 생활방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계엄령의 해제와 군대의 철수에 따라 진먼 주민들은 기지 경제에서 벗어나고, 자기 고향의 발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욕망이 커졌다. 정치의 탈군사화와 함께 역설적으로 경제의 군사화가 진행되었다. 진먼 주민은 냉전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관광자원인지를 알게 되었다. 진먼에 있는 냉전적 문화 자원은 타이완에서는 찾기 힘들고 샤먼에도 많지 않아서, 냉전의 유적들을 보존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장기 간의 군사 통제 때문에 잘 보존된 민난문화와 자연 환경도 진먼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되었다.

타이완 관광객에게 진먼은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위험하고 위대한 전장이고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로 각인되어 있다. 이들이 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먼이 타이완보다 중국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개방 이후 타이완 관광객은 타

이완 본섬과 멀리 떨어져 있는 ‘대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지만, 진먼이라는 냉전의 섬이 가진 신비함에 끌려서 많이 찾아왔다.

중국 관광객에게 진먼은 양안을 갈라놓은 상징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금지의 대상이었다. 과거에는 진먼에 있는 전쟁 유적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국민당 삼민주의사상의 정신 보루(精神堡壘)와 구호들은 접근 불가능한 대상이었다. 그래서 진먼을 방문하는 타이완 관광객은 냉전의 직접적 유산인 군사시설을 구경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중국 관광객은 냉전의 간접적 유산, 즉 군사화 과정에서 보존된 생태문화 자원들을 즐기고 쇼핑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중국 관광객에게 타이완은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장소인 반면, 진먼은 가깝게 느껴지는 장소다. 진먼에 대해 호기심이 증가하고, 양안의 정부들이 진먼을 평화 교류의 실험구역으로 지정했으므로, 중국 관광객들은 대체로 타이완보다 진먼을 먼저 찾는 경향이 있다.

양안의 관광객 때문에 진먼 주민의 생활이 많이 좋아졌지만, 불편해진 것도 있다. 진먼 주민들은 대륙에서 온 관광객과 타이완에서 온 관광객의 차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진먼 주민은 타이완 관광객이 좀더 예의바르고 위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이완 관광객은 구매력이 낮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많아서 여행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 관광객은 구매력이 높아서 좋아하지만, 너무 시끄럽고 예절과 위생을 좀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관광객은 운전면허증이 필요없는 오토바이를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길에서 지도를 보고 있어서 오토바이 안전 교육을 더 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V. 심리전의 유산과 전장 관광의 문화적 효과

1. 샤먼에서의 상응형 전장 관광의 형성

진먼에서 전장 관광의 발전은 대안인 샤먼의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샤먼의 관광은 일명 피아노섬으로 불리는 구랑위(鼓浪嶼, Gu Lang Yu Islet)를 중심

으로 형성되었으나 진먼의 전장 관광이 발전함에 따라 포격전의 대안이었던 다덩다오(大嶼島)의 군사시설을 이용한 대응적·모방적 전장 관광이 근래에 형성되었다. 구광위는 19세기 샤먼이 개항장이 되었을 때, 서구의 외교관이나 상인들이 일종의 조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서구식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여기에도 냉전기에 건설된 군사시설들이 많지만, 이것은 특별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다덩다오는 중국 영토에 속하는 섬으로 진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 여기에는 포격전 시기에 포병부대가 주둔했고 포격전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또한 심리전을 수행했던 곳이다. 샤먼의 상안 구(翔安區) 정부는 이곳에 ‘영웅 3도 전지관광원(英雄三島戰地觀光園)’을 세우기로 하고, 공기업인 상안국투집단(翔安國投集團)이 공사를 맡도록 결정했다. 이 공기업은 2010년 5월부터 국가 4A급 관광지를 만드는 목표에 따라 1,500여만 위안(인민폐)을 투입하여 ‘진먼포격전시관’, ‘국방교육관’, 망원경 모양의 ‘모형관’ 등 주요 전시관을 만들고, 30묘의 땅을 개발하여 입구 안내소, 4D 영화관, 상가, 해병전망대, 그리고 직업 훈련 관리 센터를 설치했다.

이들은 진먼과 마주보고 있는 다덩다오, 샤오덩다오(小嶼島), 자오위(角峙)를 함께 묶어서 ‘영웅 3도’로 이름 붙였다. 포격전 시기에 이 작은 섬의 주민들이 영웅적으로 싸웠다는 의미다. 또한 ‘전지 관광’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진먼의 전장 관광이 추상적 개념이라면, 샤먼의 전장 관광은 구체적인 장소와 시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 개념이다.

이곳은 냉전기의 중국군 포병 및 심리전 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명백히 진먼의 전지 관광 요소들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상응하는 항목은 첫째, 구체적인 군사시설로서의 포병 진지다. 진먼의 스산포 진지나 그밖의 진지와 대응하는 포진지, 특히 긴 거리의 지하터널이 여기에 해당된다. 포격전의 흔적을 보존하여 야외전시 항목으로 삼기도 했고, 포격전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나 담장을 전시하옥에 포함시켰다. 둘째, 진먼의 꾸닝토어전사관이나 8·23 전사관처럼 냉전기에 만들어진 역사관에 상응하여 영웅 3도 전시관을 설치했다. 여기에서는 포격전 시기 주민들의 고투를 보여주는 사진과 ‘영웅적으로 싸워던 인물들’을 주로 전시했다. 셋째, 진먼의 심리전에서 활용된 대형 스피커를 중요한 전

시 자원으로 삼았다. 대형 스피커와 함께 ‘세계 최대의 나팔’이라고 명명한 스피커가 특별히 전시되었다. ‘세계 최대’라는 나팔은 실제로 최대인지를 고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명칭은 다분히 매력을 만들어내는 의미 부여 방식이다. 넷째, 진면에 속하는 다당다오에 설치되어 있는 ‘3민주의 통일중국’이라는 입간판에 대응하여 ‘일국양제·통일중국’이라는 대형 입간판을 설치해 관광객의 시선을 끌려고 했다.

이처럼 이곳의 전시 항목들은 대체로 진면에서의 전시 항목들과 대응하여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은 가공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들에 기초하여 재배치한 것들이다. 포진지, 심리전의 도구들, 주민생활의 전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나 통일의 원칙을 보여주는 입간판들은 관광을 위한 매력 높이기의 일환이다.

사면의 전장 관광이 진면의 그것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지만, 때때로 진면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전시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화해의 전시다. 다당다오의 심리전 전시관에는 과거 심리전 방송을 담당했던 중국 측의 첸 페페(陳菲菲)와 타이완 측의 쉬 빙잉(徐冰瑩) 두 여성 아나운서(심리전 전사)가 세계 최



출처: 필자 촬영.

그림 9 다당다오의 화해의 전시(좌)와 진면의 상업적인 화해의 장면(우)

대의 나팔 앞에서 서로 만나 화해하고 ‘과거’를 추억하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이런 화해의 장면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면, 진면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종류의 상상적 화해가 발견된다. 8·23 전사관의 상점 안에 장제스(蔣介石)와 마오쩌둥(毛澤東)의 사진을 나란히 걸어놓거나 슈이터우 마을의 득월루 옆에 있는 찻집의 담장에서 마오쩌둥의 사진을 걸어놓고 관광객의 시선을 유인하는 그림이 있는데, 전자를 진정성의 전시라면 후자는 상업적 코믹성이 가미된 전시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면의 상응적 전장 관광이 역으로 진면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다딩다오에 전시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나팔’은 원래 1970년대에 만들었고 주로 공산당의 대대정책(對台政策) 방송용이었다.¹⁸ 이 나팔은 원래 푸젠 전선방송대(福建前線廣播電台)에 있었고 나중에 전시를 위해 다딩다오로 옮겼다.¹⁹ 이 세계 최대의 나팔이 다딩다오에 전시되기 이전에 진면의 츠후 해변 삼각보 옆에는 이것보다 더 큰 나팔이 예술품으로 만들어져 전시되었다. 이 나팔은



(1971, 2006)



(2004)

출처: 필자 촬영.

그림 10 다딩다오의 세계 최대 나팔(좌)과 진면의 나팔 예술품(우)

¹⁸ 台海网, 『超级大喇叭能响彻金门』, <http://www.taihainet.com/news/xmnews/shms/20070506/122814.html>(검색일: 2016. 3. 14).

¹⁹ 华夏经纬网, 『厦金“对敌广播”姐妹花見證兩岸巨變:從喊話到對話』, 2010. 7. 19, <http://big5.huaxia.com/thpl/jwgc/2010/07/1992210.html>(검색일: 2016. 3. 14).

2004년 ‘진먼 토치카예술절(金門砲堡藝術節)’이 열렸을 때 중국 설치예술가인 선위안(沈遠)이 만든 것으로, 과거의 적대적인 상황을 재현하기 위한 예술 작품이었다. 냉전기 소양안의 군사적 대치는 탈냉전기의 전장 관광을 이형동상(異形同狀)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적 원천이며, 상호작용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장 관광과 다른 경계 전장 관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지역에서 전장 관광의 차이를 말한다면, 진먼은 전장 관광의 장소가 흩어져 있지만 샤먼의 전장 관광은 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진먼에 비해 샤먼의 전장 관광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런 차이는 전장 관광이 단지 군사적 유산에 기초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중국인들은 다딩다오에 있는 ‘영웅 3도 유적공원’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타이완 관광객이나 기타 제3국의 관광객도 여기에는 아직 시선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진먼 전장 관광에 대한 직접적 대응은 아니지만, 진먼에서 직접 해운 항로로 연결되는 취안저우에 2006년 중국민대연박물관(中國閩台緣博物館)을 세웠다. 이것은 민난 지역과 타이완은 별개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의 뿌리이고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박물관은 타이완 독립파에 대한 정치문화적 차원의 대응으로, 중국 정부의 세심한 문화전략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김민환, 2016).

많은 사람이 간과하기 쉽지만, 꼭 주목해야 할 전시가 진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샤먼의 바닷가에 있다. ‘일국양제·통일중국’의 간판 앞에 설치된 ‘회귀손(回歸手)’이란 조각 작품이다. 이 ‘회귀손’은 큰 손이 작은 손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한자 ‘회(回)’자 형을 만들고 그 사이로 하나의 작은 섬을 보이게 만든 조각 설치작품이다. 이 작품은 관광객이 발의 위치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발자국을 포함하고 있다. 작품이 지시하는 지점에 발을 고정시키고 두 손 사이로 작품을 들여다보면 작은 섬이 보인다. 이 작품은 존 어리(John Urry)가 언급했던 관광객 시선으로서의 응시(gaze)론을 응용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특정의 정치적 효과를 생산해내는 예술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샤먼의 회귀손은 관광객의 시선을 끌어들여 고정시키고, 샤오진먼을 응시하게 하며, 중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주문하는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진먼에서 샤먼을 향해 바라보는 응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진먼에



진먼 벙커 창문



샤먼 회귀손

출처: 필자 촬영.

그림 11 소양안의 상호 응시와 그 차이

도 구조화된 응시가 존재한다. 바로 전시시설로 개방되어 있는 지하 벙커의 사격창이다. 이것은 실재했던 시설로 옛날 전장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면서 전방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있다. 양안 모두에서 상호 응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그 가시적 응집력은 샤먼 쪽이 진먼 쪽보다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손이 설치된 샤먼의 해변에는 마쭈 상(媽祖像)이 새로 만들어 세워졌다. 마쭈는 원래 중국 푸젠 성의 어민들이 모시는 여신이고 중국 대륙의 이민을 따라서 마쭈 신앙이 진먼과 타이완에 들어와 ‘민대해양문화(閩台海洋文化)’가 형성되었다. 타이완의 마쭈 신들은 다 푸젠 성의 ‘조묘(祖廟)’에서 기원한 것으로, 마쭈 상이 샤먼의 바닷가에서 진먼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은 단지 하나의 만조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간 아이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모친의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샤먼에는 비록 민대연박물관과 같은 타이완을 향한 직접적 언명을 생산하는 박물관은 없지만, 이렇게 정치적·문화적·종교적 요소들을 결합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타이완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냉전 시기의 방송심리전을 대신하는 탈냉전시기의 문화정치를 보여준다.

2. 전장 관광에 문화 관광을 더하기

냉전 유산은 군사시설과 같은 직접적 유산과 군사적 통제가 낳은 비의도적·간접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간접적 유산은 군사적 통제 덕분에 보존된 자연 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된다. 진먼은 저개발로 자원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한 경우로, 전통적인 민난식 건축과 근대 초기의 서양식 주택이 있다. 이들은 전장 관광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더해지는 문화적 자원들이다. 진먼의 관광진흥 전략은 전장 관광에서 문화적 요인을 더한 복합 관광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걷는 것이다.

1949년 이전 진먼은 중국 푸젠 성의 민난 지역, 그 중에서도 통안현(同安縣)에 소속했으나, 1949년부터 타이완의 영토가 되었다. 민난 지역은 16세기부터 중국의 유명한 화교의 출발지로, 점차 교향(僑鄉)이 되었고, 타이완과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진 ‘해양민난문화(海洋閩南文化)’의 원형이 있는 지역으로 의미가 변화했다.

진먼은 워낙 푸젠 성과 가까워서 민난문화가 농후하고, 샤먼의 급속한 도시화와 전통문화의 파괴에 대비되어, ‘살아있는 민난문화’와 ‘민난문화의 마지막 유전자 풀(gene pool)’로 간주된다(오준방, 2015: 398). 진먼의 건축은 해양민난문화를 보여주는 전통적 건물과 화교들의 회귀의식을 보여주는 서양식 건물들로 구분된다. 진먼에는 1949년 이전에 만들어진 서양식 건물 161채가 있고, 1949년 이후부터 1970년 초기까지 지어진 건물 69채가 있다(江柏燁, 2012: 9). 또한, 진먼 국가공원의 관리 아래 있는 전통 건물은 총 1,081채다.

진먼국가공원은 한편으로는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주택을 소유주에게 지원하여 2014년 6월까지 총 291채를 복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2005년부터 방치된 전통 건물들을 집주인들로부터 30년간의 지상권을 확보하고 복원한 후, 이를 민속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ROT: Reconstruction, Operation, Transfer)으로 재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계약기간 4~7년의 민속으로 활용되거나 전시관으로 활용되었다. 2014년까지 지상권을 확보하여 복원한 전통 건축은 74채였고, 이 가운데 63채가 민속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군사적 공간을 재활용한 매점이 두 개



진슈이(金水) 소학교



첸징란(陳景蘭) 양루

출처: 필자 촬영.

그림 12 화교박물관으로 재활용된 양루들

다.²⁰

민숙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가 슈이터우 마을(水頭村)과 쭈산 마을(珠山村)이다. 슈이터우 마을에는 민숙이 총 23채 있고 매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식당이고 하나는 기념품 가게다. 쭈산 마을의 민숙은 12채다. 민난식 전통주택의 민숙은 타이완 본섬과 푸젠 성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문화 보존과 현지 체험 관광의 이중적 전략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전장 관광에 문화적 요소를 덧붙이는 효과적인 장치다. 민숙이 대부분 민난식 건축을 이용한다면 서양식 건물을 모방하여 지은 ‘양루’들은 주로 역사문화 전시관으로 활용된다. 그 중에 슈이터우 마을의 진슈이(金水) 소학교 건물은 1999년 복원하여 화교역사박물관으로 바꾸었고, 진후진(金湖鎮)의 첸징란(陳景蘭) 양루는 2008년 복원하여 ‘군사경관의 재생(軍事地景的再生)’, ‘교향문화의 재현(僑鄉文化的再現)’, ‘마을생활의 보전(聚落生活的保全)’이라는 3개의 주제를 전시하는 복합 박물관이 되었다.

민난문화의 유산을 활용한 문화 관광은 전장 관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먼의 관광산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이런 문화적 자원들이 주로 경관과 건

²⁰ 中華民國內政部營建署, <金門國家公園管理處活用公有資產, 榮獲財政部評定「國有公用不動產活化運用績效」公務預算組第三名>, 2014. 2. 17, http://www.cpami.gov.tw/pda_chinese/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7267&Itemid=141(검색일: 2016. 3. 10).

축에 기초했다면, 냉전 기억을 활용한 새로운 복합 관광의 요소가 영화다.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된 영화 <군중낙원(軍中樂園)>은 냉전 시기에 금기시된 주제, 즉 군대 위안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면에서 근무했던 병사의 기억을 다루었다. 원래 진면에는 10만 명의 국민당 군대를 위한 일종의 공장으로서의 특약다실(特約茶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를 관광객을 위해 전시관으로 개조하여 개방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특약다실 건물로 첸칭지(陳清吉) 양루를 세트로 활용했다.

첸칭지 양루와 첸징란 양루는 냉전 시기에 각각 국민당군의 훈련소나 휴게소로 이용되었다. 양루가 전통식 건물보다 크고 화려하며, 건물의 정면 상단부에는 화교들의 애국주의를 표현하는 상징으로서의 청천백일기와 국민당 당기를 그려 넣었기 때문에(江柏燁, 2012: 17), 국민당 군대의 활동을 표현하는데 적절했다. 그러나 이 양루는 개인 재산이어서 곧바로 관광자원으로 전환되지 못한다. 반면, 다른 세트장들, 예를 들어 양자이 거리(楊翟)와 자이산 갱도 등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양자이 거리는 변화가 크다. 2013년 이전에는 오직 여기에 있는 풍샤야만 소개되어 있었지만, 2014년 영화 세트장으로 재단장된 이후 새로운 볼거리로 재탄생했다. 1960년대의 가게와 휘날리는 청천백일기,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 슬로건들은 타이완 본섬과 중국에서는 찾기 힘든 것으로 진면의 독특한 냉전 기억을 재현하고 있다. 이 영화는 군사경제 아래에서 번성하다가 퇴락한 거리를 일시적으로나마 재생시키고, 특히 젊은 세대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만들었다.

VI. 맺음말: 복합 관광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성

전장 관광의 형성 초기에 진면은 확실히 타이완 관광객의 추억을 불러 일으켰고, 그 후로 점차 중국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양안의 젊은 세대가 대부분 냉전 역사에 대해 낯설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진면의 전장 관광은 매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관광계획을 수정하면 원래의 엄숙함이나 진지함을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 진면의 전장

관광은 점차 진정성과 오락성 사이에서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최근에 진먼의 전장 관광은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진먼 당국과 주민들은 전장 관광의 지속성을 위해 문화 관광과 결합시키고 나아가 국제적 인정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려고 한다. 사실 이미 2002년 타이완 정부는 진먼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했는데, 주로 ‘진먼전장문화’와 ‘민난상민문화’(閩南常民文化)를 주목했다(金門縣文化局, 2011: 22-34). 근래에 진먼 주민들도 진먼을 국제 관광 레저 섬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진먼의 군사적·문화적 유산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011년 2월, ‘진먼현 세계유산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2014년에는 진먼에서 전장 문화와 전통 건축 복원에 대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좌도 열렸다. 여기에서 장 보웨이(江柏煒)는 진먼이 전통 관광의 단순한 레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통합적 보존(integrative conservation)의 모델을 채택하여 유형의 전장 자산과 무형의 인류학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江柏煒, 2014: 45-50). 무형의 자산은 주민의 집합적 기억과 구술사에 기초하는 것이다. 진먼에서 냉전의 유산을 지속해서 보존하고 활용하려면 현지 주민의 기억을 투입하여 주민이 전장 유산의 가치를 알게 하고, 전장 유산의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江柏煒, 2014; 曾逸仁, 2014; 林美吟, 2014). 그는 이를 통해 진먼 전체를 냉전박물관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1953~1992년 동안 진먼에서 실시된 전지정무는 민난식 전통주택과 서양식 화교주택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작용했다. 이것은 대안인 샤먼에서의 전통 주택 문화의 파괴와 극적으로 대비된다. 이런 주택들이 상징하는 민난문화는 전장문화와 같이 ‘진먼학(金門學)’의 기초적 자원을 형성한다. 또한 진먼에 흩어져 있는 양루들을 활용한 화교의 역사박물관들은 단순히 놀러오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배우러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²¹ 이들은 전장 관광의 딱딱함을 누그러뜨리면서 진먼의 관광을 미학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이끌어 간다.

²¹ 채널경북, <체류형 관광의 성공 조건>, 2015. 10. 27, <http://www.channelkb.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34>(검색일: 2016. 2. 25).

이처럼 전통적인 민난식 주택의 민숙으로의 활용, 양루를 활용한 역사박물관으로의 재구성을 축으로 하는 문화 관광이 전장 관광에 더해지면서, 진먼의 관광진흥 전략은 복합 관광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먼의 전장 관광, 나아가 복합 관광으로의 전환 속에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새겨져 있다. 그것은 생태적 자원의 상대적 고갈 가능성이다. 관광객이 지속해서 증가할 때 발생하는 수자원과 전기, 그리고 중국인들이 사들이는 토지 증가와 지가 상승 등은 건강한 생태적 환경을 위협한다. 이것은 전장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진먼 주민들의 녹색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중요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2015년 11월에 진먼국가공원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의 주제는 바로 이 역사, 문화,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었다. 이 회의에서 지속가능성은 증가되는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만한 자원의 새로운 개발을 넘어서서 복합 관광을 떠받칠 수 있는 생태학적 조건, 또는 성장의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진먼의 지역사회에 내재하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정치적 변수다. 진먼의 전장 관광의 발전은 호전된 양안 관계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2016년 1월의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자 중국은 타이완이 독립정책을 채택한다면 중국 관광객 수를 줄일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진먼에서는 아직도 국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하면서도,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하고 있었다. 전장 관광에서 출발한 진먼의 관광계획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있지만, 양안의 서로 다른 기대와 취향에 의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구조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장 관광이 가진 장소의 매력성은 한두 번의 방문에 의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급속한 한계효용의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이 필요하고, 확대되는 관광산업을 떠받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진먼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투고일: 2016년 4월 25일 | 심사일: 2016년 5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4일

참고문헌

- 『천하잡지(天下雜誌)』
- 『金門일보(金門日報)』
- 『중시전자보(中時電子報)』
- 『연합보(聯合報)』
- 『대기원보(大紀元)』
- 『채널경북』
- 百度旅游, <http://lvyou.baidu.com/>
- 台海网, <http://www.taihainet.com/>
- 華夏經緯網, <http://www.huaxia.com/>
- 김민환. 2016. “중국 속 대만, 대만 속 중국: 양안 ‘국립’박물관들의 함종연횡.” 박명규·백지운 편, 『양안에서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다』, 135-156. 과천: 진인진.
- 오준방. 2015. “탈냉전과 진먼학: 형성, 성과, 과제.” 『사회와 역사』 제107집, 389-420.
- 오준방·정근식. 2014. “진먼 냉전생태의 형성과 해체: 지뢰전시관 형성의 경로를 따라서.” 『사회와 역사』 제104집, 7-43.
- 江柏煒. 2012. “金門洋樓: 一個近代閩南僑鄉文化變遷的案例分析.” 『國立臺灣大學建築與城鄉研究學報』第二十期, 1-24.
- _____. 2014. “冷戰島嶼: 戰地文化景觀保存及維護芻議.” 『2014年推廣金門縣世界遺產登錄計畫文化遺產維護培訓講座—戰地文化遺產保存講座』, 29-58. 金門: 金門縣文化局
- _____. 2016. “地方史與全球史的連結: 金門研究的價值”(초고).
- 經建會管制考核處. 2012. “離島建設基金推動10年回顧與未來推動方向.” 『台灣經濟論衡』 vol.10, no.9, 24-66.
- 郭美芳. 2012. “金門空間形式轉化之意涵—由戰地轉為觀光空間與兩岸樞紐之形式轉化.” 『2012年金門學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313-327.
- 金門縣文化局. 2011. 『金門走向世界遺產—由戰爭到和平』, 金門: 金門縣文化局.
- 金門縣政府. 2009a. 『金門縣誌—卷首、大事志』, 金門縣政府.
- 金門縣政府. 2009b. 『金門縣誌—人物志與觀光志』第十一冊, 金門縣政府.
- 林美吟. 2014. “戰地文化遺產保存의 民衆自主參與及環境教育.” 『2014年推廣金門縣世界

- 遺產登錄計畫文化遺產維護培訓講座—戰地文化遺產保存講座, 121-142.
- 水牛設計部落有限公司. 2010.“金門國家公園戰役史蹟景觀風貌構成調查計畫案—期末報告.”金門國家公園管理處委託研究.
- 施沛琳. 2014.“金門戰地文化创意产业初探.”『閩台文化研究』第39期, 77-85.
- 侯錦雄. 1999.“形式的魅影—金門觀光的戰地異境想像與體驗.”『觀光研究學報』第五卷, 第一期, 39-52.
- 楊樹清. 2002.“「兩門對開, 兩馬先行」的觀察與省思.”『金門日報』(7. 12).
- 鄭根埴·吳俊芳. 2015.“金門的(脫)冷戰及民主化: 著重於其雙重性轉換.”江柏煒·王秋桂主編.『歷史島嶼的未來—2015年金門歷史、文化與生態學術研討會論文集』, 371-388. 金門國家公園.
- 趙乃嘉. 2012.“金門發展國際觀光度假區對當地文化觀光的影響評估.”碩士論文, 朝陽科技大學
- 曾逸仁. 2014.“從世遺觀點探討金門軍事遺產的價值與陳述.”『2014年推廣金門縣世界遺產登錄計畫文化遺產維護培訓講座—戰地文化遺產保存講座』, 77-108.
- 陳建民. 2003.『兩岸關係發展與金門角色定位之研究—「小三通」後的觀察』. 台南: 久洋出版社.
- 黃振誼·徐健進·陳順興. 2011.“從利害關係人角度探討纜車對貓空觀光永續發展之影響.”『育達科學報』第26期, 67-102.
- 侯錦雄. 1999.“形式的魅影—金門觀光的戰地異境想像與體驗.”『觀光研究學報』第五卷, 第一期, 39-52.
- Chambers, Thomas A. 2012. *Memories of War: Visiting Battlefields and Bonefields in the Early American Republic*.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Chang, Li-Hui. 2014. “Remapping the Isl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ourism and Conflict Borders of the Kinmen–Xiamen Border.” *Journal of China Tourism Research* 10(3), 363-377.
- Cooper, Malcolm. 2006. “The Pacific War Battlefields: Tourist Attractions or War Memorial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8(3), 213-222.
- Dunkley, Ria, Nigel Morgan, and Sheena Westwood. 2011. “Visiting the Trenches: Exploring Meanings and Motivations in Battlefield Tourism.” *Tourism Management* 32(4), 860-868.
- Herborn, Peter J. and Francis P. Hutchinson. 2014. “‘Landscapes of Remembrance’ and Sites of Conscience: Exploring Ways of Learning Beyond Militarising

- 'Maps' of the Future." *Journal of Peace Education* 11(2), 131-149.
- Kuo, Nien-Te, Kuo-Chien Chang, Yi-Sung Cheng, and Jui-Chou Lin. 2015. "Effects of Tour Guide Interpretation and Tourist Satisfaction on Destination Loyalty in Taiwan's Kinmen Battlefield Tourism: Perceived Playfulness and Perceived Flow as Moderator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13, May 1-20.
- Le, Diem-Trinh Thi, Douglas G. Pearce. 2011. "Segmenting Visitors to Battlefield Sites: International Visitors to The Former Demilitarized Zone in Vietnam."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28(4), 451-463.
- Lee, Yi-Ju. 2015. "The Relationships Amongst Emotional Experience, Cognition, and Behavioural Intention in Battlefield Tourism."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4, July, 1-19.
- Lloyd, David W. 1998. *Battlefield Tourism: Pilgrimage and the Commemoration of the Great War in Britain, Australia and Canada, 1919-1939*. Oxford, UK; New York: Berg.
- Maoz, D. 2006. "The Mutual Gaz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221-239.
- Perkins, H. C. and D. C. Thorns. 2001. "Gazing or Performing?: Reflections on Urry's Tourist Gaze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Experience in the Antipodes." *International Sociology* 16(2), 185-204.
- Seaton, A. V. 1999. "War and thanatourism: Waterloo 1815-1914."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1), 130-158.
- _____. 2000. "'Another Weekend Away Looking for Dead Bodies...': Battlefield Tourism on the Somme and in Flander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25(3), 63-78.
- Szonyi, M. 2008. *Cold War Island: Quemoy on the front l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rry, J. 2002. *The Tourist Gaze*. London: Sage Publications.
- Zhang, J. J. 2010. "Of Kaoliang, Bullets and Knives: Local Entrepreneurs and the Battlefield Tourism Enterprise in Kinmen (Quemoy), Taiwan." *Tourism Geographies* 12(3), 407-433.

Abstract

Post-Cold War and Sustainability of Battlefield Tourism in East Asia: A Case of Kinmen

Keunsik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fang W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study the development, practice and consequences of battlefield tourism in Kinmen island, which is a border, serving as a prime example of newly formed battlefield tours in East Asia. Kinmen island was the site of the final battlefield in the Chinese Civil War, which divided into mainland China and Taiwan, so that it became the very frontline of the Cold War-division. During the Cold War, this island became the battlefield of artillery and psychological warfare.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ourism incorporating the experiences of battlefield and border has been started in this island. This tourism targets two groups; one is those who have a nostalgia among Taiwan; and the other is those who come from the mainland. This paper tries to analyse the dynamics of tourism through the interactions of the tourists and locals, the difference in the tourist's gazes and the behavior between the two groups, and the consequences of the battlefield tourism in Kinmen for the corresponding tourism in Xiamen, as a counterpart of Kinmen in the Cold War.

The border-cum battlefield tourism in Kinmen initially began with the Cold War landscape, but slowly developed into a more complex destination combining cultural resources, and finally, show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battlefield tourism resulting from the growth of tourists.

Keywords | Cold War landscape, battlefield tourism, border tourism, gaze, sustainability

www.kci.go.kr